[2016년 경찰직 2차 한국사 답과 해설]

남부경찰학원 이운우

[총평] 난이도 상(上)에 해당할 정도로 쉽지 않게 출제되었다. 배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확실히 외우지 못하면 틀리게 출제되었던 예전의 출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서도, 보통의 기본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덩달아 추가되면서 어려운 난이도가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해방 이후의 현대사가 단 1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기본서를 도외시한 채 필기 노트만으로 한국사를 학습한 수험생은 많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서를 정독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② /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① 구석기시대, ③ 청동기시대, ④ 청동기 시대

2. ③ /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옳은 보기는 ㉡과 ㉣ 2개이다. ㉠ 영고는 5월이 아니라 12월에 열렸다. ㉢ 부여는 5개 부족 연맹으로, 왕은 자신의 부족만 직접 다스렸고, 나머지 4부는 마가·우가·구가·저가 등 가(加)라고 불리는 족장 세력들이 다스렸다. ㉤ 동예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 아니라 무천이다.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이다. ㉥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와 왜에 수출한 곳은 마한이 아니라 변한이다. ㉦ 제정 일치가 아니라 제정 분리라고 해야 맞다.

3. ④ / [고대의 정치] ④ 성왕 때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천도하였다.

4. ② / [고대의 경제] ② 촌주가 매년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3년마다 다시 작성하였다.

5. ① / [고대의 문화] ① 강수는 외교 문서에 능통한 6두품 출신의 유학자로, 불교를 세외교(世外敎)라 하여 비판하였고 아울러 일부다처제와 골품제도 비판하였다. ② 설총은 진골 출신이 아니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이다. ③ 「사륙집」이 틀렸다. 「사륙집」은 최치원의 저서로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다. ④ 성덕왕이 아니라 진성여왕이라고 해야 맞다.

6. ③ / [중세의 정치] ① 압록강 동쪽의 9성이 아니라 6주라고 해야 맞다. (동북) 9성은 윤관의 별무반이 여진으로부터 확보한 영토이다. ② 나성은 국경 지대가 아니라 개경에 축조되었다. ④ 배중손이 아니라 김통정이라고 해야 맞다.

7. ① / [중세의 문화] 옳은 보기는 하나도 없다. ㉠ 「삼국사기」는 편년체가 아니라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 「삼국유사」는 충선왕이 아니라 충렬왕 때 편찬되었다. ㉢ 「동명왕편」은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 계승을 반영하였다. ㉣ 「제왕운기」는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단군의 건국이야기가 수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고려는 건국 초부터 역대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이후에도 고려왕조실록은 계속 편찬되었지만, 14세기 홍건적의 침입과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8. ① / [중세의 정치] ㉠ 망이·망소이의 난 → ㉢ 전주 관노의 난 → ㉡ 김사미의 난 → ㉣ 만적의 난 → ㉤

이연년 형제의 난 순이다.

9. ② / [근세의 문화] 제시된 자료는 「삼강행실도」로 세종에 대한 문제이고, ②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주조한 국왕은 태종에 해당한다.

10. ④ / [근세의 정치] ④ 교서관은 서적을 간행하는 곳이고,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곳은 예문관이라고 해야 맞다.

11. ③ / [근대태동기의 정치] ③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한 시기는 18세기(숙종 38년, 1712년)이고, 경신환국(숙종 6년, 1680년)은 17세기 후반이므로 (다)가 아니라 (라) 시기에 해당한다. ④ 안용복은 숙종 19년(1693)과 숙종 22년(1696)에 일본을 2차례 방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으므로 (라) 시기가 맞다.

12. ① / [근대태동기의 문화] ① 진경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화풍을 배격한 것은 아니고, 중국의 남종 화법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② 김홍도는 정조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 정조의 화성 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 궁중 풍속을 많이 그리는 등 궁정 화가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13. ② / [근세의 정치] 옳은 보기는 ㉠과 ㉡이다. ㉢ 생원과와 진사과가 서로 바뀌었다. ㉣ 무과에서는 28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 문과·무과·잡과 모두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가 원칙이었다.

14. ① / [근대태동기의 문화] ①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저술하였고, 수확량 기준이었던 종래의 결부법 대신에 면적 기준인 경무법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② 「경세유표」는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 형옥 관련 내용은 「흠흠신서」에 수록되어 있다. ③ 성리학이 틀렸다. 성리학 대신 승려가 들어가야 맞다. ④ '호포제의 적극적인 실시'가 틀렸다. 허목은 자신이 쓴 「기언」에서 붕당 정치와 북벌 정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왕과 육조의 기능강화, 중농정책의 강화, 사상(私商)의 난전금지, 부세의 완화, 그리고 호포제 실시 반대와 서얼허통 방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의 자급자족 경제와 재야 선비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15. ④ / [근대태동기의 경제와 사회] ① 최시형이 아니라 최제우가 창시하였다. ② 잠채(潛採)가 성행하자 국가는 18세기 후반(1775)에 기존의 별장제를 폐지하고 수령이 직접 세를 거두는 수령수세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채굴하는 잠채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성행하였다. ③ 의주의 만상은 대청 무역에 종사하였으며, 대일 무역에 종사한 상인은 동래의 내상이다. ④ 상평통보는 인조(1663) 때 처음 발행되어 개경에 시범적으로 유통되었고, 이어 효종 때 재발행되어 널리 유통되었으며, 숙종(1678) 때 다시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6. ③ / [일제 강점기] 제시된 자료는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에 대한 내용으로,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 나타나 있다. ①②④ 1910년대에 대한 설명이다. ③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었다.

17. ② / [근대사] ① 교육입국조서는 갑오2차 개혁 중인 1895년에 반포되었으므로 광무개혁(1897~1904) 이

전에 해당한다. ② 배재학당(아펜젤러), 숭실학교(베어드), 경신학교(언더우드), 정신여학교(엘레스) 등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들이다. ③ 최초의 사립학교는 육영공원이 아니라 원산학사이다. ④ 서전서숙은 이상설·이동녕 등이 북간도에 건립한 학교이다.

18. ④ / [일제강점기] 제시된 자료는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고, ① 신채호, ② 정인보, ③ 백남운에 대한 설명이다.

19. ① / [일제강점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한 시기는 1940년이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편된 것은 2차 개헌인 1925년이므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 1987년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라고 하여 우리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 ④ / [일제강점기] ㉢ 1920년 → ㉡ 1921년 → ㉠ 1923년 → ㉣ 1927년 순이다.